판결·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돌려받을 가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 쓰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가처분 인용

사업장 점유 보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 정

법무법인 해율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대차계약의 무효 및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

[redacted]



이 유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3.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건물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점유 상태를 지키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건물을 돌려달라는 재판을 하는 동안 사용자가 바뀌면 판결 뒤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 관계의 다툼은 정산과 운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요구와 법원이 정한 의무를 구분해 다음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해결의 핵심

건물의 소유권을 바꾸는 문제와 현재 사용하는 사람을 바꾸는 문제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주장한 내용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돌려받을 가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돌려받을 사업장에 다른 사용자가 들어오려 한다면
- 인도 재판 중 임차인이 가게를 넘기려 한다면
- 사업장 반환 전에 사용자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해율이 함께한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건물 반환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입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실제 판단을 함께 살펴보면,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을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달라진 점

이번 결정은 누가 건물을 사용하는지 그 상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판단이 정한 의무와 실제 이행은 구분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준비할 자료와 절차를 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명의와 실제 점유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면
- 임대차 종료 뒤 제3자 사용을 막아야 한다면
- 가게를 돌려받을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